



무용학연구소

뉴스레터 Vol. 06



무용학연구소, 댄스미디어연구소 특강



기생 캐릭터는 왜 인기였을까?
- 신파성의 본질과 의미

강사 : 이영미 (아동예술교육사, 성공회대 대학교수)
일시 : 2016년 1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 8131호
주최 : 무용학연구소, 댄스미디어연구소
후원 : 포스트임팩트재단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제28회 콜로키움

**대학무용교육에서
라반움직임이론교육의 현황**

강사 : 윤지은 (성신대학교 강사)
일시 :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6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 8131호
주최 : 무용학연구소 (<http://danceie.ewha.ac.kr>)
문의 : 02-3277-4473 / E-mail: dancerie@ewha.ac.kr



■ 목 차



Contents

무용과 공연

2017년

9월

- 현대무용단 탐 <제37회 정기공연> 1
- 1학년 월례회 2
- 김영희 무트댄스 <모르는 사이에> 4

10월

- 2학년 월례회 5

11월

- 제3회 무용창작콩쿨 7
- 현대무용단 탐<제7회 젊은 무용수, 젊은 안무가> 9

12월

- 대학원 석사, 박사(실기/이론) 프로포잘 10
- 졸업 작품 발표회 11

#<인터뷰>

- "이화에서의 3년을 마무리 하며" 15

#<특집>

- "졸업작품을 마치고" 19
- "무용평론계의 아버지 'John Martin' " 20

무용학연구소 콜로키움

10월

- 제28회 콜로키움 <윤지은> 24
- "대학무용교육에서 라반움직임이론교육의 현황"

12월

- 제29회 콜로키움 <유화정> 25
- "트랜스미디어시대의 무용문화사연구"

2018년

1월

- 특강 <정연경> 26
- "여성구술사를 통한 한국의 근대화"

특강 <이영미>

- "기생 캐릭터는 왜 인기였을까" 27

제1회 학술심포지엄

- "동북아시아 공연예술에 나타난 근대성"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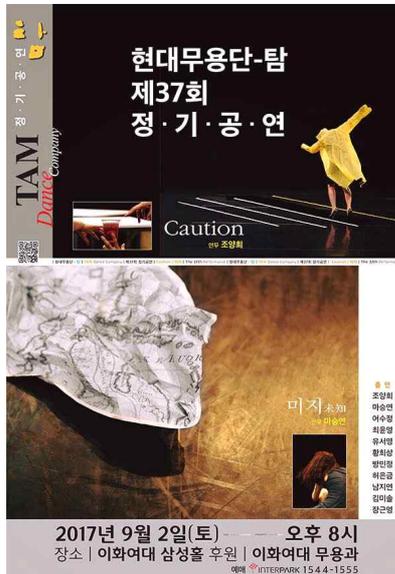




■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현대무용단 탐 <제37회 정기공연>

2017년 9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2017년 9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현대무용단 탐의 제37회 정기공연의 막이 올랐다. 작품은 조양희의 <Caution>과 마승연의 <미지(未知)> 두 작품이 공연되었으며 출연에는 조양희, 마승연, 어수정, 최윤정, 유서영, 황희상, 방민정, 허은금, 남지연, 김미솔, 장근영 등이 있다.





■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무용과 1학년 월례회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 홀 I에서 3시 30분부터 1학년 월례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월례발표회는 발레 3작품, 한국무용 3작품, 현대무용 3작품, 총 9개 작품 <버리다>, <이상>, <유애>, <멈춤의 미학>, <Cicada(매미)>, <갈증>, <물망초>, <가리고, 가려지다>, <숨기다>로 구성되었다.

<버리다>의 안무 및 출연은 김순화, 윤혜린, 이하영, 이현아, 조은영으로 끝없는 미래와 이상을 위해 버릴 수 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상>의 안무 및 출연은 김서희, 서효림, 이나은, 임예지, 정현수로 현실에서 지금도 사라지고 흩어지는 순간들을 영원토록 잡아 놓을 수 있는 이상세계를 만들어 작품 속에서 표현하였다.

<유애>의 안무 및 출연은 김서연, 이연희, 이해인, 정우연으로 어지러운 향초내음은 우리를 괴롭히고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음은 또 다른 슬픔을 상기시킴을 표현한 작품이다.

<멈춤의 미학>의 안무 및 출연은 강예나, 김규리, 김채린, 박민지, 전효진, 정재은으로 서로의 관계에 대해 무관심한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멈춤'을 통해 여유를 발견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Cicada(매미)>의 안무 및 출연은 김민선, 김은진, 손혜원, 유다빈으로 단 15일간의 울부짖음을 위해 7번의 인고 시간을 겪는 매미를 표현하였다.

<갈증>의 안무 및 출연에는 김소원, 김자현, 민근혜로 '물'에 '나'를 빗대어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표현한 작품이다.



- 계속



■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무용과 1학년 월례회

- 계속



<물망초>의 안무 및 출현에는 김혜지, 양희재, 이도연, 이서연, 정은지로 어릴 적 순수했던 꿈을 잊고 살아가는 현재, 순수했던 어린 시절 회상,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였다.

<가리고, 가려지다>의 안무 및 출현에는 신동윤, 안성연, 장혜지, 정승우로 회색으로 물든 이곳에서 우린 더 보고 느끼고 각자의 색을 찾고 싶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숨기다>의 안무 및 출현에는 김세희, 김혜윤, 배상은, 안예빈, 임지우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이를 가로막는 현실 사이를 보여주며 마침내 스스로를 자기 안에 깊이 숨기는 것을 표현하였다.

첫 월례회였기 때문에 기대감만큼 긴장감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월례회를 통해 1학년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확일 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글 사진- 김남지, 송윤경
편집 - 김세린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김영희 무트댄스 <모르는 사이에>

SPAF
제17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내작 미리보기 첫 번째
김영희무트댄스 <모르는 사이에>



김영희무트댄스



김영희무트댄스 예술감독·김영희

강한 내면을 인식하고 존재론적 차각 내지는 삶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제시하는 연무가

"그녀의 움직임 혹은 공연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하나로 통합된 대체가 되어 우리의 느슨한 의식에 대머록 충격적인 반응을 불러 온다."
객석 이상일

모르는 사이에
Without Realizing

김영희무트댄스
KIM YOUNGHEE MUTDANCE
9.21 Thu 9.22 Fri 8pm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안
리
창
초
무
연
김영희 Young-hee Kim
60분
1995 문예회관 대극장

'모르는 사이에' 펼쳐지는 인생의 춤미학
인간의 본능적 행동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몸짓의 표출

<모르는 사이에>는 김영희의 전반기 인생 속에서 춤에 대한 신념이 얼마만큼 정립돼 있는지 정리한 작품이다. 스스로의 존재를 탄생과 죽음으로 표현하는데 멈추지 않고, 흐르는 자연현상(물, 불, 바람)을 주요 주제로 삼아 표현한 작품 '모르는 사이에'

지난 9월 21일-22일 금요일 오후8시,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김영희 무트댄스의 공연 <모르는 사이에-Without Realizing> 공연이 있었다. 공연의 소개로는 인간의 본능적 행동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몸짓의 표출에 대한 내용이다.



■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무용과 2학년 월례회



지난 2017년 10월 19일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 홀 I 3시 30분에 2학년 2학기 월례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조기숙 총괄 지도교수님, 김명숙 2학년 지도교수님과 그 외의 실기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진행된 월례발표회는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각각 세 작품 씩 총 9개의 작품으로 <영혼의 시간>, <관계>, <홀림>, <그리워하다>, <공간의 존재>, <기억>, <빈칸>, <버리려 할수록>, <어우러지다>으로 구성되었다.

<영혼의 시간>은 발레전공 이수윤, 장채린, 하유림, 황정예 학생 안무로 '답답한 육체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영혼들, 그들의 입장이 되어 영혼의 시간을 상상하여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관계>는 현대무용 전공 김민지, 이규림, 이혜지, 황은빈, 황지경 학생 안무로 한 겹을 벗어 던지고 나서 우리는 생각보다 복잡한 사이라는 것의 깨달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세 번째 작품은 한국무용 전공 김윤하, 김채린, 어진, 오승희, 조상희 학생들의 <홀림>으로, 무엇에 흘러 정신을 차리지 못함을 의미하는 미혹을 표현한 작품이다. 네 번째 작품은 발레 전공 구윤지, 박선주, 오지연, 장원진, 정혜연 학생들의 <그리워하다>로, 이는 무기력해진 현재에 대한 회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향한 동경, 그리고 사라져버린 것들에 대한 향수를 그린 작품이다.

-계속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무용과 2학년 월례회

- 계속

다섯 번째 작품은 현대무용 전공 강승민, 김수진, 김현성, 박하연, 차은비 학생들의 <공간의 존재>로, 그곳에 이야기를 담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러한 공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한 작품이다.



여섯 번째 작품은 한국무용 전공 김연수, 나주은, 성유빈, 양수현, 정서희 학생들의 <기억>으로, 눈을 감아도 여전히 선명한 하얀 종이 위에 번진 물감처럼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가 새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막고 이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일곱 번째 작품은 현대무용 전공 이지수, 이목미, 주혜빈, 한성은, 홍은지 학생들의 <빈칸>으로, 빈 칸을 채우고 그 안에 갇히며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여덟 번째 작품은 한국무용 전공 강소정, 도예은, 박주현, 박태은 학생들의 <버리려 할수록>으로, 떨치려고 할수록 상기되며, 뿌리를 뽑으려고 할수록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 표현한 작품이다. 마지막 아홉 번째 작품은 발레 전공 김민영, 김여진, 신정윤, 양영아, 현민지 학생들의 <여우리지다>로, 여럿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로 뭉싸이는 분위기를 그린 작품이다.

무용과 2학년 학생 전원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창작과정 전반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공심화 프로그램이다. 2학년 학생들은 세번째 월례발표회로 1학년 월례발표회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였고 표현법과 몸의 움직임에서 더욱 성숙한 성장을 볼 수 있었다. 무용과의 교과과정의 연장선으로 공연을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 창의적 작업을 통해 전공의 역량을 더욱 강화 시킬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었다.

글, 사진 - 박지현, 최정이
편집 - 김세린



■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제3회 무용 창작 콩쿨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30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홀 I에서 무용과 교내 창작콩쿨이 있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무용창작콩쿨은 전공별(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창작 콩쿨은 학생들의 실기 능력과 안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국내외의 무대에 설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년도 콩쿨에는 한국무용은 총 5팀, 현대무용은 6팀, 발레는 1팀이 참가하였다. 수상결과는 한국무용에서는 1위 <백야행>, 2위 <너를 기다리는 동안>, 공동3위 <피어난 애(愛)>, <소녀의 목소리>가 현대무용에선 1위 <흐름>, 공동 2위 <return>, <하얀여백>, 3위 <bud>, 발레에선, 1위 <One's real intention>이 수상하였다.

<참가자 인터뷰>

한국무용 <소녀의 목소리>

1532023 윤혜수

이대에 들어와 여성학을 접하면서 위안부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하게 되었다. 그 아픔을 전달하고자 우리는 그것을 춤으로 표현하였다. 어떠한 성과를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픔에 대한 공유,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월례회에 비해 부담이 적었고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만의 표현방식과 안무 방식을 통해 작품을 준비하는 내내 집중력있게 임하였으며, 즐길 수 있었다. 비록 월례회만큼의 완벽한 완성도를 갖추진 못했지만 우리는 과정을 즐겼고 우리가 표현해보고 싶은 위안부 사건을 '무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드러낸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 속 응어리들을 우리의 춤으로 풀어내면서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해본다. 콩쿨이라는 평가방식과 성과를 떠나서 우리의 춤을 순수하게 드러내어 뜻 깊었던 시간이라 생각한다.

현대무용 <return>

1632036 한성은

평소에 작품의 주제나 안무, 음악 등에 관심이 많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공유하던 친구들끼리 모여 자유롭게 작품을 준비하니 창작의 진행속도도 빨랐고 의견충돌도 없이 즐거운 분위기로 춤을 출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하던 월례회는 공연이다 보니 관객들을 생각하며 만들어 창작의 폭이 좁았는데 이번 교내 콩쿨에서는 오로지 우리들의 창작욕구에 집중하여 평소에 하던 작품들보다 더 과감하게 만들었고 훨씬 참신한 주제와 소품도 구성해낼 수 있었다. 콩쿨을 통해 오로지 우리만의 색깔이 담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니 실력도 한 단계 위로 올라간 것 같았다.

-계속



■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계속

제3회 무용 창작 콩쿨

또한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를 받아 앞으로의 발전에 더 추진력을 얻고 자신감이 붙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더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해야 될 점도 많지만 친구들과 다 같이 한층 성장하는 기분은 큰 기쁨으로 다가와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발레 <One's real intention> 1632020 양영아

평소 월례회 준비를 하면서 보다 적은 인원으로 짧게 작품을 창작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이번 창작 콩쿨에는 정윤이와 둘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 시간을 맞추거나 의견을 조정하는데 있어 월례회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월례회를 준비할 때 춤 외에도 의상이나 조명 역시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데 의상과 조명이 정해져 있어 오롯이 춤에 집중하여 안무를 하는데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2학년 월례회와 비슷한 시기에 창작콩쿨을 준비하는 바람에 준비기간도 짧았고 충분한 연습을 하지 못해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월례회작품을 하면서 주제의식을 명확히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짧더라도 주제의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동작과 구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었다. 결과적으로 동작을 수정하고 작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동안 창작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창작콩쿨을 통해 또 하나의 우리만의 작품으로 무대에 설 수 있어 뿌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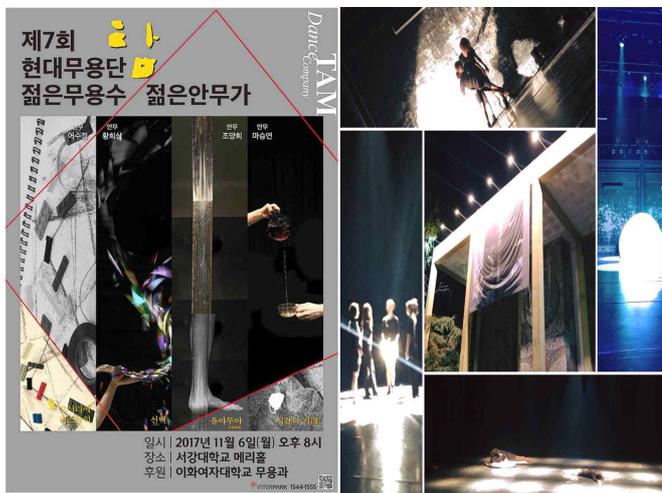
한국무용 2위 수상작 <너를 기다리는 동안> 안무 및 출연 - 김세린 김수영

글 사진 - 서승윤, 진수정
편집 - 김세린



■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현대무용단 탐 <제7회 젊은 무용수 젊은 안무가>



현대무용단 '탐'이 11월 6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 메리홀에서 제7회 '젊은 무용수 젊은 안무가' 공연을 진행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젊은 무용수 젊은 안무가' 공연은 젊은 세대 무용가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들만의 안무 스타일을 4인 4색 창작작업을 통해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항상 완성도 높은 춤과 테크닉에 각자의 안무하는 창작의 색을 입혀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세계가 드러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이번 공연은 어수정 '<모서리에 비스듬히>', 황희상 '<선택>', 조양희 '<우야무야(有耶無耶)>', 마승연 '<시간의 거래>'가 무대에 선보였다. 현대무용단 탐은 창단 이래 지금까지 매년 '정기공연'을 통해 무용 관객들과 교감하며, '젊은 무용수 젊은 안무가'등 공연을 통해 다양한 춤 색의 신작발표와 안무자 발굴에 힘써왔다.

글 - 황재윤 김지혜
편집 - 김세린



■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대학원 석사 실기 졸업발표회 & 석사 이론 프로포잘

일시: 2017년 12월 7일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홀 I, 구체육관 202호



실기박사 프로포잘 & 이론박사 프로포잘

일시: 2017년 12월 14일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구 체육관 202호





■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졸업작품 발표회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 건물 홀에서 무용과 4학년 학생들이 1부와 2부로 나누어 졸업발표회를 선보였다. 총 50팀으로 작년보다 다소 많은 학부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졸업 발표회는 학생들 개개인이 직접 안무, 의상, 조명까지 기획하여 오로지 그들만의 무대를 꾸미는 졸업하기 전 학부생활의 마지막 공연인 것에 깊은 의미가 있다. 고학년인 만큼 작품의 완성도에 있어서 세련되고 성숙함이 돋보이는 무대였으며 그들이 4년 동안 이화에서 쏟은 수많은 노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졸업 발표회를 마치고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파트 중 각 한 명씩 인터뷰하여 졸업 발표회에 대한 그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에는 김다인(현대) , 김정민(발레), 윤혜린(한무)이 참여하였다.



Q. 졸업발표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김다인(현대): 졸업발표회를 준비하면서 비교적 빨리 마음에 드는 음악을 구했으나, 안무를 직접 짜는 과정에서 한번 작품을 완전히 바꾼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안무했던 것을 영상을 찍어서 보니 생각보다 단조롭고 밋밋하고 또 제가 정한 빠른 비트의 음악과는 어울리지 않아서 아예 처음부터 바꿨어요. 순간 갈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김정민(발레): 모든 작업을 다 혼자 해야 하니까 엄두가 안 났어요. 사실 시작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달리 방도가 없어서... 그 점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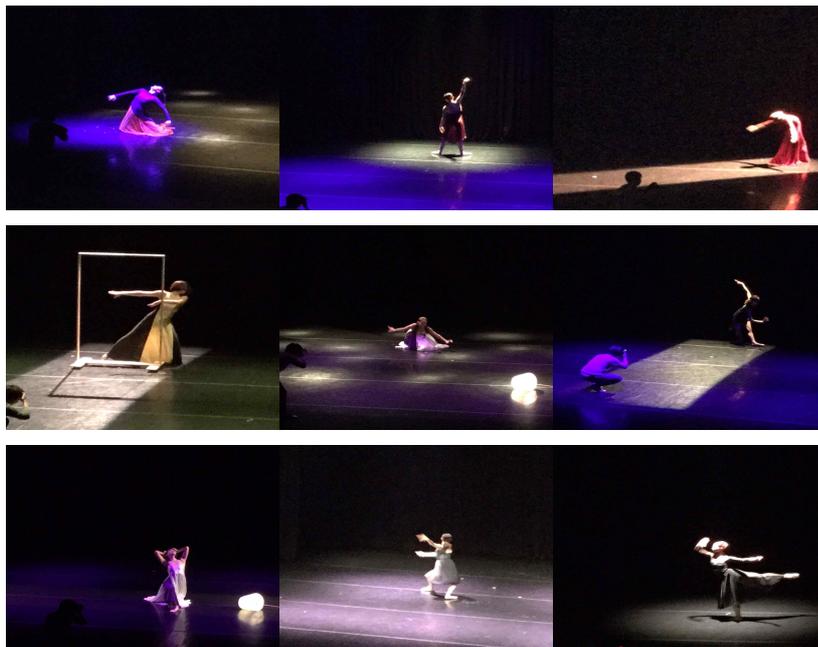


■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졸업작품 발표회

- 계속

윤혜린(한무): 사실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도 쉬운 일은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면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 져야 한다 거요! 동작 하나를 짜도, 음악을 골라도, 의상을 만들어도 제 스스로 내린 결정이니까 누군가를 탓할 틈도 없이 저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야 했고, 그래서인지 작품을 만드는 과정 중 어느 한 부분도 대충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갔지만 결국 그걸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무대를 그려내는 것은 제 자신의 일이니까요. 이런 무거운 책임감에서 밀려오는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은 제 자신을 신뢰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어서... 그 점이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 계속



■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졸업작품 발표회

- 계속



Q. 작품의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게 됐나요?

김다인(현대): 제 작품의 제목은 <무응답> 이었어요. “대답하지 않는 것도 대답이다.” 라는 주제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집들 중에 읽는 순간 마음에 확 와 닿았고 많이 깨달았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주제로 선정 했었어요.

김정민(발레): 저는 사실..... 주제는 자아와 관련된 추상적이고 심오한 주제로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문득 관객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몇 십 명이 다 그런 주제로 춤추고 있으면 보기에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간단하고 깔끔하게, 어렵지 않은 주제를 선정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인물인 클레오파트라를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어요.

윤혜린(한무): 누구나 졸업작품을 하게 되면 4년이라는 대학생활의 집약 혹은 그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그쵸? (웃음) 그런 공통된 생각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따라 각자의 개성과 색깔이 담긴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춤 자체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구체물이 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특정한 상징물을 정해 비유적으로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각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상징물이 무엇일지가 쉽게 정의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소설이나 시를 뒤적여보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제목이나 내용들이 눈에 띄면 그것에 대해 더 깊이 조사를 하면서 작품의 주제를 선정해나갔던 것 같아요(웃음)

- 계속



■ 무용과 공연 Dance & Performance

- 계속

졸업작품 발표회



Q. 월레회와 졸업발표회 중 한번 더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김다인(현대): 저는 월레회를 한번 더하고 싶어요. 졸업작품은 혼자 안무하고 저만의 색깔을 표현한다면, 월레회는 조금 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무를 할 때에는 각자의 의견도 있고 시간을 맞춰서 만나는데 힘들 때도 물론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다 보면 제가 생각 못했던 신선한 아이디어도 많이 가지고 있고 협력도 잘 되어서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김정민(발레): (웃음) 이거 질문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웃음) 음... 졸작까지 다 끝난 졸업을 앞둔 상태라서 그런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월레회가 하고 싶네요. 하하

윤혜린(한무): 저는 절대적으로 월레회요! 1, 2, 3학년 때는 친구들과 일일이 시간을 맞추고, 각자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작품을 만드는 게 부담스러워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남이랑 부대끼지도 않고 수월하게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인간은 약간의 통제 속에서 자유를 누릴 때 더 큰 안도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나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혼자서 모든 책임을 떠 맡고 외로운 길을 걷는 졸업작품보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어려움을 나누던 월레회가 나에게 있어서는 더욱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굳이! 해야 한다면... 월레회요(웃음).

글 사진 - 강나후, 임승연
편집 - 김세린



Dance
Research Institute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 인터뷰 Interview

“이화에서의 3년을 마무리 하며”

설레고 떨리는 기분으로 이화에 입학한지도 어느새 삼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4학년만 남기고 있는 15학번 무용과 학생들의 인터뷰를 담아 봤다. 인터뷰에는 홍지영(한국무용 전공), 최정이(발레 전공), 백수연(현대무용 전공)이 참여 하였다.



(사진)왼쪽부터 발레전공 최정이, 현대무용전공 백수연, 한국무용전공 홍지영

Q. 3년 동안 이화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홍지영 - 일단 학교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계절마다, 낮과 밤마다, 노을이 질 때마다 학교의 전경은 나에게 활력소를 주고 친구들과 사진 한 장 더 찍게 되는 추억을 준다. 무용과에서 한 학기마다 하는 월례회는 물론 힘들고 창작의 고통이 따르지만 그만큼 창의성이 길러지는 것이 하면 할수록 느껴졌고 다른 팀들의 작품을 보면서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도 풍부해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친구들과 월례회 준비를 하면서 많이 소통하게 되므로 친구들의 어떤 무용에 대한 세계관을 엿볼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또한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서로 배려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의 인성과 협동심을 길러주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이다. 무용을 실기로 접할 뿐만 아니라 무용에 관한 이론들을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풍족해짐을 느끼고 나의 전공을 살린 미래의 직업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게 되었다.

최정이 - 4계절 내내 예쁜 이화 교정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고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춤을 추면서도 고등학생 때와는 다른 더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찾아서 해야한다는 것에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냈을 때의 성취감과 뿌듯함은 잊을 수 없어요. 아직은 1년이 남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후배들에게 그리고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동문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Dance
Research Institute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 인터뷰 Interview

“이화에서의 3년을 마무리 하며”

-계속

백수연 - ‘where change begins’ 이라는 우리 학교의 대표 슬로건처럼, 이화에서의 3년은 이화인들의 힘찬 움직임으로 새로운 세상을 위한 변화를 이루어 내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학교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다행이라는 마음이 든다. 입학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4학년 졸업반이 된다는 게 조금은 두렵고 겁이 나지만, 이화에서의 가르침과 존경하는 교수님, 사랑하는 동기와 선후배가 있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3년 동안 이화여대생으로서 이화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특히 전공에 있어서 나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무용장르와 실기, 이론을 통해 더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미래를 위해 단단히 준비하며 의미 있고 빛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Q. 후배들에게 바라는 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홍지영 -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성적관리를 하고 또는 놀러 다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뭐를 할 때 행복하고 뿌듯한지를 찾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과거나 현재에 묶어서 한정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훨씬 더 크게 꿈꾸길 바라며 혹시 삶의 회의감을 느끼거나 지루함을 느꼈을 때는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여행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고 나의 마인드나 세상을 보는 눈을 훨씬 넓혀줌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의 욕심이 가득 찬 얘기일 수 있지만 예술을 향유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예술을 위한 삶을 살기 바란다. 예술가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예술이 삶의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려주고 한국의 예술 문화가 좀 더 각광받게 되는 날이 오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제발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지금 곁에 있는 친구들을 소중히 하며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4년의 이대 생활을 헛되지 않게 보내길 바란다. 모두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다.

-계속



■ 인터뷰 Interview

“이화에서의 3년을 마무리 하며”

-계속

최정이 - 힘든 노력 끝에 들어온 곳인 만큼 학교생활도 최선을 다하길 바라고 그 외에도 대학생 때만 느낄 수 있는 많은 경험도 해보길 바라요..(하하) 할 수 있을 때 미팅도 많이 해보고 소개팅도요. 지금 아니면 누리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열심히 할 땐 하더라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백수연 - 후배들에게 조언 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이야기 하자면, 후배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한 곳만 바라보며 쉬지 않고 달려오느라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살이 생각보다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겠지만 늘 해왔던 것처럼 나태해지지 말고 할 일을 충실히 해 나갔으면 좋겠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이화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니 열심히 도전하며 자기 자신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4년이라는 긴 듯 짧은 시간동안 소중한 동기, 선후배들과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도 많이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Q. 앞으로의 나의 미래 계획이나 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홍지영 - 나의 꿈은 안무가이다. 전공을 살린 안무가의 삶도 의미가 있지만 나는 항상 나의 춤에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졸업을 하면 많고 다양한 장르의 춤들을 배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동작의 제한이 없도록 더 많이 배움으로써 창의성을 기르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싶다. 최종의 목표가 있다면 나만의 장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의 메소드, 테크닉을 배우고 전통적인 춤을 전수받고 이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사랑하는 일에 선구자가 되는 것도 멋진 삶인 것 같다. 쉽지 않겠지만 말했듯이 꿈은 크게 가지는 데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감정을 알려 주고 싶다. 춤을 추면서 느끼는 행복감과 춤을 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 감동 등을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계속



■ 인터뷰 Interview

“이화에서의 3년을 마무리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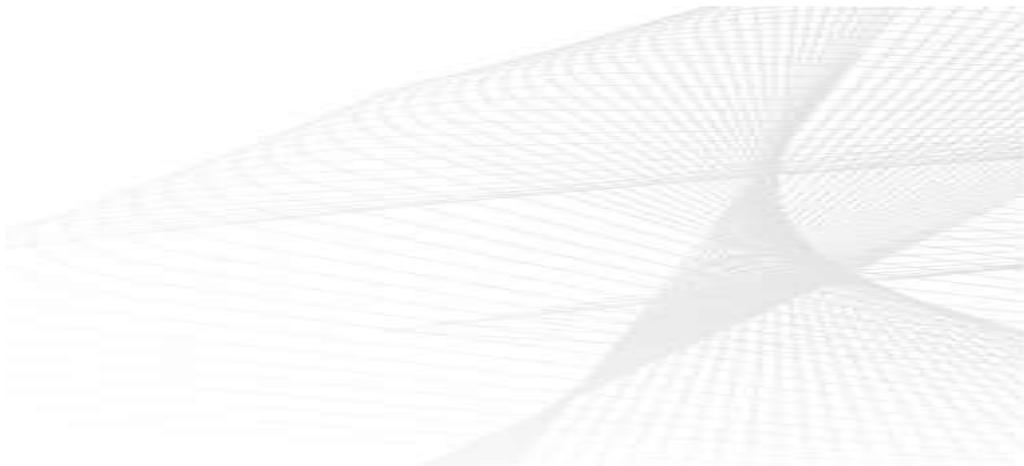
-계속

최정이 -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지 무슨 일을 할지 아직 잘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 이화에서 배운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정한 꿈은 없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하나하나 내가 할 일들을 해 나가면 언젠간 꼭 원하는 일을 찾고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화에서 배웠기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낼 것입니다.

백수연 - 아직 미래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지만, 늘 지금처럼 배움에 있어서 게을러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며 살아갈 것이다. 또한 이화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어느 위치에 서있던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남은 대학생활 동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일지 고민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도전해 나갈 것이다.

글, 사진 - 김세린 신수진 최효련

편집 - 김세린





#특집 Special Issue

“졸업작품을 마치고”

< 기억을 위한 기록 >

시계 바늘이 오후 7시를 향하고 있다. 일주일 전 이었다면 홀에서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시간이다. 지난날의 나는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아 졸업 공연을 끝낸 소감을 타자기로 두드리고 있을 줄 생각이나 했을까. 졸업 공연을 끝낸 기분을 막상 글로 풀어내자니, 이런 저런 생각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한 두 마디로는 표현하기 힘들다는 뜻이겠지. 쉽게 시작해 쉽게 끝낸 것이 아니라 그런지, 글도 쉽사리 쓰여지질 않는다. “졸작” 꽤 오래 전부터 날 괴롭혀 왔던 단어다. 한 해 하고도 반 년 전 이었던 4학년 1학기, 나와 내 동기들은 졸작이 코 앞에 다가왔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른 감이 있었지만, 전공 수업시간엔 다가올 졸작에 대비해 작품을 안무하는 시간을 가졌고, 시험도 물론 봤다. 그렇게 나와 동기들은 졸작에 대한 부담을 막 갖기 시작할 때 였다. 그 해에 내가 졸업 작품 발표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 후, 나의 동기들이 졸업 작품을 준비할 때, 나는 교환학생으로 나름의 여유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친구들의 하소연에 위로 아닌 위로를 전하기도, 함께 할 수 없음에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런 시간들 동안, 나는 ‘졸작’에 대한 무언의 압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드디어 때가 왔다. 나에게도 졸업이 다가왔다는 증거이자, 한 학기 고생 좀 해야 한다는 그 놈의 ‘졸작’ 말이다. 참으로 길고도 짧은 두 달이었다. 하루가 이렇게도 길었나 싶기도 했다. 여차 저차 1,2차 심사가 끝나고 어느새 공연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에게 “졸업 작품 발표회”는 그들의 딸들, 친구들이 무대에서 춤 추는 ‘한 순간’으로 기억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에게 “졸작”은 한 순간으로 기억되 기에는 아까울 만큼 많은 순간들의 집합체다. 그저 흘러가는 음악이 막막하게만 들리던 그때, 1분을 겨우 넘기고는 마냥 기뻐하던 순간, 힘들여 바꾼 부분을 또 지적 받을까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지 말까’ 하며 망설이던 순간들, ‘괜찮은데?’ 라는 친구의 한 마디에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때,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는 인사가 “안녕” 이 아닌 “힘들어 죽겠네” 였던, 하소연이 곧 인사가 되던 날들. 무대에서의 ‘3분’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다지만, 어쩌면 우린 그 3분이 울려지기 직전의 순간까지를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졸업을 하고 대학생활을 돌이켜 보게 될 때면, 어느 순간이라도 돌아가고 싶을 것 같다. 그만큼 나에게 졸업은 무거운 이별로 다가온다. 나의 후배들이 이 글을 본다면, 지금 그 순간들을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괴로워 하라고 말 해주고 싶다. 이화에서 보낸 어느 한 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적 없을 테니까.

4학년 홍주연



#특집 Special Issue

글: 4학년 홍주연

무용평론계의 아버지 'John Martin' "나는 평론가(Critic)가 아니라 보고자(Reporter)이다."

"무용에 대한 대중들의 찬사와 지지가 현실 속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술계와 관련해 잘 다듬어진 비평 기사를 다루는 신문이 미국 내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1927년 미국의 월간지 씨어터아트(Theatre Art)에 실린 기사의 한 문장이다. 88년 전, 당시 미국 무용계에 불었던 '변화'의 바람은 오늘날 미국의 현대무용(Contemporary Dance)을 탄생시켰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무용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 더 많은 대중들이 무용을 배우고, 공연을 관람하고, 무용수의 팬이 되기도 한다. 국립발레단의 홍보마케팅 팀장 김현아씨는 월간 '몸'지의 인터뷰에서 "요즘에는 국립발레단에서 6회 공연을 하면 5회는 매진이다"라며 무용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신뢰도가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여전히 '무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힘들다. '무용기자'라는 말은 그저 '무용전문잡지'에서나 쓰일 뿐이다.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아이서퍼(Eye surfer)'를 이용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우리나라 주요 3개 일간지에 실린 무용관련 기사를 찾아본 결과, 평균 17건에 불과했다. '뉴욕타임즈'가 같은 기간 동안 쓴 약 250건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숫자이다. 88년 전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현대무용'을 수면위로 끌어올린 한 사람이 있다. '뉴욕타임즈'의 최초의 무용평론가 '존 마틴(John martin)'이다.

1차 대전이 끝난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무용은 사람들의 여가활동으로 보편화되고, 포크댄스나 사교댄스와 같은 다양한 장르가 생겨났다. 무용평론가 심정민의 논문에 따르면, 무용보도의 시발점인 '극장무용(Theater Art)'이 대중들의 흥미를 끌기 시작한 것은 1926년, 이사도라 던컨(Isadora Duncan, 1877-1927)에 의해 '현대무용(Contemporary dance)'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발레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신체의 자유분방함을 보여주는 현대무용은 그 당시 대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무용가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움직임을 표출 해 줄 공식적인 목소리가 필요했고 신문사들은 변화하는 무용계의 경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할 만한 기자가 필요했다. 1927년, 미국의 3대 일간지, 뉴욕타임즈, 뉴욕월드, 헤럴드 트리뷴은 새로운 시도를 감행한다. 정식 무용 칼럼 비평가를 고용하는 것이다. '뉴욕월드'의 '루실마쉬(Lucil Marsh)', '헤럴드 트리뷴'의 '메리 F. 와킨스(Mary F.Watkins)'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존 마틴'이 그들이다. 이들은 음악평론의 일부였던 무용평론을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로 분리시켰다. 하지만 1930년대 미국의 경기침체로 예술지면이 축소되면서 '뉴욕월드'와 '헤럴드 트리뷴'은 무용평론가를 해고시키고, '뉴욕타임즈'의 '존 마틴'만이 유일한 무용 평론가로 남게 된다.

-계속



#특집 Special Issue

-계속

무용평론계의 아버지 'John Martin'

"마틴의 찬사가 없는 공연은 맨발로 바늘방석을 밟는 것과 같다"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무용수들과 공연관계자들이 눈을 뜨자마자 찾아보는 것은 '뉴욕타임즈'의 연예란에 실린 마틴의 칼럼이었다. 무용평론가 '도리스 헤링(Doris Hering, 1920-2014)'이 '댄스매거진(Dance magazine)'에 서술했듯, 사람들은 마틴의 발레에 대한 계간평론, 특출 난 무용수에 대한 의견 그리고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에 관한 단편 등을 읽고 난 후에야 다른 뉴스거리를 찾아볼 정도로 마틴에 글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틴의 독자층은 그들에게만 한정 되지 않았다. '언론 편집자'들도 마틴의 독자군단의 일부였다. 그들은 마틴의 글이 호의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해석이 담긴 논평을 싣곤 했고, 머지 않아 신문의 광고와 무용공연 브로셔에서도 마틴의 평론이 인용된 글들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비평가의 첫 번째 의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해석하면서 공연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 마지막으로 신문에서의 비평은 무용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용 공연을 잠재적으로 지지하는 독자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틴이 1956년 뉴욕트리뷴지의 월터 테리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세 가지 원칙이다. 독자들을 이끄는 그의 힘은 이 원칙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apezio상을 수상한 존마틴과 마사그라함>

그는 전문적인 지식을 과시하는 평론가가 아니었다. 만약 그랬다면 대중들은 그를 외면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관객'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도리스 헤링에 따르면 '존 마틴은 프랑스의 문학평론가 고티에(Theophile Gautier, 1811-1872)의 환기력도, 춤 비평가 안드레 레빈손(Andre Yacovlev Levinson, 1887~1993)의 박식함도 구비하지 않았지만, 언론기사의 중핵인 누가-무엇을-언제-어디서 와 평론의 중핵인 '왜'를 절묘하게 배합한 그의 매력적인 글은 독자들을 흡족하게 만들었다'며 그를 설명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 받은 것은 아니었다. 마틴의 직관적인 평가는 다른 평론가들에게 비난을 사기도 했다.

'댄스매거진'의 스투어트 팔머(Stuart Palmer)는 '마틴은 논쟁을 거쳐 해결 되어 할 논의들을 너무나도 쉽게 요약해 결론짓는 경향이 있다'며 그를 비난했다. 하지만, 일간지 평론가였던 마틴은 '일반 대중'들에게 읽힐 수 있는 글을 쓰는데 몰두했다.

-계속



#특집 Special Issue

-계속

무용평론계의 아버지 'John Martin'

"현대무용은 최초의 진정한 미국 예술 현상"

극장예술에 대한 마틴의 애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 되었다. 1893년 6월 2일 켄터키 루이스빌에서 태어난 그에게는 가수 출신 어머니가 있었다. 극장과 음악을 사랑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란 마틴은 1912년부터 1927년까지 15년간 연극배우로 종사하며 무용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1920년대 극장무용이 극장무용이 확산되면서 '뉴욕타임즈'의 음악평론가 '올린 다운스(Olin Downes)'는 더 이상 무용평론을 대신 쓸 수 없었다. 때마침 무용수 '엘자 핀들리(Elsa Findly)'가 자신의 친구였던 마틴을 올린다운스에게 소개했고, 그는 6개월 임시직으로 '뉴욕타임즈'에 들어오게 된다. 마틴은 처음부터 오랫동안 몸담을 생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현대무용'에 매료되면서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에게 현대무용은 신세계였다. 도리스 헤링에 따르면, '1926년 끝없는 변화와 격동으로 대변되는 '마사 그레이엄(Martha Graham, 1894-1991)'의 춤은 등장하자마자 1년 내내 마틴의 일요 칼럼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친근하지 않았던 현대무용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면서 현대무용의 대중화에 앞장섰다. 그는 젊은 현대무용가들이 그들의 고유한 안무세계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지자' 역할을 해왔다. 마사 그레이엄이 말했듯, 존 마틴이 없었다면 지금의 현대무용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1962년 1,459번째 논평을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즈'를 은퇴하고, 'UCLA'에서 무용이론을 가르치면서 '무용교육'에 힘쓴다. 그리고 1985년 5월 19일 뉴욕 주 사라토에서 9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88년전, 미국의 음악평론가가 무용평론을 대신 썼듯 우리나라 일간지의 무용평론은 공연담당기자가 쓰곤 한다. 정작 '무용전문기자'들은 설 곳이 없다. 그들에게는 무용전문지 6개가 전부이다. 월간 '몸(Momm)'지의 손예운(25) 기자는 무용전문지 좌담에서 "뉴욕의 한 현대무용단에서 일할 당시, 맨해튼 공연이 끝난 몇 일 후 '뉴욕타임즈' 리뷰란에 무용단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부정적인 리뷰였지만 무용수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우리나라도 '자신감 있는' 비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비평은 쉬이 쓰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용전문지의 재정 문제도 시급하다. 웹진 '춤추는 거미'의 진연숙 기자는 '우리나라 무용계에 종사하는 무용수나 평론가, 기자들은 오로지 여기에 전력투구해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든 점' 이라며, '무용이 좋아서, 이를 위해 글을 쓴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한국 무용 평론계의 현실은 이렇게 '열악'하다. 무용평론가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더 많은 곳에 전달할 수 있도록 무용계가 변화할 때 비로소 한국의 존 마틴의 탄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속



■ #특집 Special Issue

-계속

무용평론계의 아버지 'John Martin'

참고문헌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357229>

<http://www.columbia.edu/cu/cjas/dance2.html>

<http://archives.nypl.org/dan/18493>

<http://www.danceheritage.org/martin.html>

[https://en.wikipedia.org/wiki/John_Martin_\(dance_critic\)](https://en.wikipedia.org/wiki/John_Martin_(dance_critic))

<http://www.nytimes.com/1985/06/06/arts/memorial-for-john-martin.html>

'존 마틴(John Martin)의 무용비평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양은정

'<뉴욕타임즈>의 무용평론가 존 마틴의 비평적 성향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심정민





■ 무용학 연구소 콜로키움

Colloquium

무용학연구소 제 28회 콜로키움



“대학무용교육에서 라반움직임이론교육의 현황”

지난 10월 20일 금요일 6시, 이화여자대학교 ECC B131호에서 “대학무용교육에서 라반움직임이론교육의 현황”을 주제로 윤지은 강사님의 콜로키움이 있었다. 대학무용교육에서의 라반움직임이론교육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고 즐거운 강연을 진행하였다.



■ 무용학 연구소 콜로키움

Colloquium

무용학연구소 제 29회 콜로키움

무용학연구소
제29회 콜로키움

**트랜스미디어 시대의 무용문화사연구
-댄스신고식과 커버댄스**

강사: 유 화 정 (국립극장 예술아카데미 강사)
일시: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B131호
주최: 무용학연구소 (<http://dancerie.ewha.ac.kr>)
문의: 02-3277-4473 / E-mail: dancerie@ewha.ac.kr



“트랜스미디어시대의 무용문화사연구-댄스신고식과 커버댄스”

지난 10월 20일 금요일 6시, 이화여자대학교 ECC B131호에서 “트랜스미디어시대의 무용문화사연구-댄스신고식과 커버댄스”를 주제로 유화정 강사님의 콜로키움이 있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댄스와 매체에 대하여 논하는 흥미로운 자리였다.



■ 무용학 연구소 특강

Special Class

무용학연구소·댄스&미디어연구소 제1회 특강

무용학연구소, 댄스&미디어연구소 특강

여성구술사를 통한 한국의 근대화

: 그 의미와 기록화 과정

강사 : 정연경 (이화여대 중앙도서관장, 문헌정보학과 교수)
 일시 :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 B147호
 주최 : 무용학연구소, 댄스&미디어연구소
 후원 : 포스코청암재단



“여성구술사를 통한 한국의 근대화: 그 의미와 기록화 과정”
정연경(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지난 1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이화여자대학교 ECC B147호에서 “여성구술사를 통한 한국의 근대화: 그 의미와 기록화 과정”을 주제로 정연경(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강사님의 콜로키움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여성 구술사의 연구방법과 현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무용학 연구소 특강

Special Class

무용학연구소·댄스&미디어연구소 제1회 특강

무용학연구소, 댄스&미디어연구소 특강

기생 캐릭터는 왜 인기였을까?

- 신파성의 본질과 의미

강사 :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 성공회대 대우교수)
 일시 :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 B147호
 주최 : 무용학연구소, 댄스&미디어연구소
 후원 : 포스코청암재단



“기생 캐릭터는 왜 인기였을까-신파성의 본질과 의미”
이영미(대중예술평론가, 성공회대 대우교수)

지난 1월 26일 금요일 오후2시 이화여자대학교 ECC B147호에서 “기생 캐릭터는 왜 인기였을까-신파성의 본질과 의미”를 주제로 이영미(대중예술평론가, 성공회대 대우교수) 강사님의 콜로키움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기생캐릭터와 신파성의 의미에 관한 자세한 강연이 이어졌다.



■ 무용학연구소·댄스&미디어연구소 국내학술심포지엄

Symposium

무용학연구소·댄스&미디어연구소 국내학술심포지엄

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 댄스&미디어연구소 국내학술심포지엄

동북아시아 공연예술에 나타난 근대성
Modernity Represented in Performing Arts of Northeast Asia

2018년 1월 27일 (토) 14:00~16:30
이화여자대학교 SK텔레콤관 컨벤션홀

개회식	사회: 김주희(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14:00~14:10	개회사: 신상미(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소장 겸 댄스&미디어연구소 소장) 축사: 윤승현(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장)
14:10~14:30	한·중·일 근대 무용가의 예술 활동에 나타난 근대성 연구 - 최송희, 대에련, 사다 아코를 중심으로 김현정(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신상미(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14:30~14:50	근대적 무대, 이데올로기적 전통, 그리고 젠더적 질서 전지영(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14:50~15:10	1912년 기생의 전기춤과 서민안락무 김영희(김영희춤연구소 소장)
15:10~15:30	동아시아 공연예술에서 나타나는 중성적/양성적(中性的/兩性的) 미(美) - 한일 극예술의 비교고찰 노상호(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한국학 교수)
15:30~15:50	동북아시아 전통극의 다중적 근대 - 창극, 경극, 가부키를 중심으로 윤지현(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 송성아(부경대학교 강사)
15:50~16:20	종합토론 박성혜(단국대학교 강사), 이정민(수원대학교 문화예술학부 객원교수), 최성애(춘천고대 대학원 강사), 한석진(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정재임(이화여자대학교 강사)
16:20~16:30	폐회식

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댄스&미디어연구소 특강

여성구술사를 통한 한국의 근대화 - 그 의미와 기록화 과정	강사: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장, 문헌정보학과 교수) 일시: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B147호
기생 캐릭터는 왜 인기였을까? - 신파성의 본질과 의미	강사: 이영미(대중예술평론가, 성공회대학교 대우교수) 일시: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ECC B147호

| 주최·주관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 댄스&미디어연구소

| 후 원 | 포스코창알재단

| 문의처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진선미관 410호 무용학연구소

Tel. 02-3277-4473 E-mail. danceres@ewha.ac.kr



행사위치 지도





■ 무용학연구소·댄스&미디어연구소 국내학술심포지엄

Symposium

무용학연구소·댄스&미디어연구소 국내학술심포지엄





발행처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연구소

발행일 : 2018년 2월 28일

발행인 : 신상미

책임 편집 및 글 : 권혜인, 김세린

편집 및 글 : 무용과 기자단

김세린, 진수정, 정재은, 김남지, 김민정, 임승연, 이서윤, 배우진, 최정이,

황재윤, 신수진, 전수산나, 최효련, 서승윤, 송윤경, 박지현, 이자윤,

강나후, 길지혜